

“중국 꺾고 시드니올림픽행 아직도 잊지 못해”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우생순)은 비단 여자핸드볼 선수만의 얘기는 아닐 것이다. 모든 스포츠인들에게 그들의 우생순이 있다. 언제 떠올려도 기분 좋은, 또는 가슴 뭉클한 스포츠인들의 그 짜릿한 기억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달한다.

1999년 12월29일 亞 최종전서 승리
당시 세대교체가 본선행 성공의 원인
V리그 우승 중 2010~2011시즌 최고

1999년 12월 29일 중국 상하이 후아동체육관. 이곳에서는 2000년 시드니올림픽 남자배구 아시아 지역예선 최종전이 벌어졌다. 아시아에 배당된 출전권은 단 한 장이다. 한국은 이미



신치용 고문

대만과 일본을 격파한 상태(2승)여서 중국을 꺾는다면 티켓을 거머쥘 수 있었다. 그해 한국은 중국에 2연승을 거두고 있어 분위기는 좋았다. 다만 중국의 홈 텃세가 걱정이었다. 특히 1970년대 말 아시아 최고의 스타플레이어였던 왕자웨이 중국 감독은 홈에서 열리는 경기에서 반드시 한국전 연패를 끊겠다는 각오였다. 그러나 한국은 강했다. 한국은 중국을 3-0으로 완파하고 3전 전승으로 5회 연속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당시 감독인 신치용(63) 삼성화재배구단 고문은 그 날을 인생 최고의 순간으로 기억했다.

“국내에선 다들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일본과 중국 감독들이 대회를 앞두고 우리에게 안 진다고 큰 소리쳤다. 하지만 우리는 적지에서 해냈다. 너무 짜릿했다. 올림픽 티켓이 확정되는 그 순간이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다. 승리를 장담했던 일본과 중국 감독은 대회 이후 경질된 걸로 안다. 또



한국배구 최고 지도자 신치용 삼성화재배구단 고문은 국가대표팀에서는 2000년 시드니올림픽 본선팀을 따낸 것을, V리그에서는 2라운드까지 끝내지다가 결국 챔피언십에 오른 2011~2012시즌을 배구 인생 최고의 승부라고 말했다.

내 개인적으로는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코치에 이어 2000년에는 감독으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기쁨을 누렸다.”

올림픽 본선행의 원동력은 감독의 리더십과 함께 성공적인 세대교체다. 실제로 세대교체를 통해 더 강해졌다. 김세진을 주장으로 선임한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주포인 신진식-김세진에 더해 이경수와 장병철이 가세하면서 전력은 한층 강화됐다.

안타까운 건 2000년 이후 남자배구가 긴 수렁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5회 연속 올림픽 출전을 끝으로 4회 연속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신 고문은 “2020년 도쿄올림픽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한다. 특히 기본에 충실한 훈련을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선수들이 싫어한다고, 피곤하다고 해서 안 시켜

선 안 된다. 기본에서 지면 절대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화재를 이끌면서 술한 우승을 만들어 낸 신 고문은 지난해 말 일선에서 물러났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배구공을 잡아 성지공고-성균관대-한국전력을 거친 신 고문은 지도자로서 최고의 승부사로 평가받는다. 배구인생 52년 동안 실업시절 77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고, 2005년 출범한 V리그에서도 사상 최초로 7연승 우승을 달성하는 등 우승에 관련한 둘째가라면 서러워했다.

그 많은 우승 중에서 특히 그가 꼽은 최고 순간은 V리그 2010~2011시즌이다. 신 고문은 “2라운드 끝날 때 끝까지였다. 그런 상황에서 정상에 오른 건 정말 잊을 수가 없다”고 했다. 1라운드 2승4패, 2라운드 1승5패로 고전했던 삼성화재는 겨우 봄 배구에 진출

했고, 준PO~PO~챔피언을 치르면서 단 1패만 기록했을 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신 고문은 우승 원동력을 ‘팀워크’라고 했다.

“사실 삼성화재는 실업배구 시절엔 선수층이 좋아 우승했다. 프로가 되면서 성적 역순 드래프트 때문에 선수가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외국인 선수를 앞에 내세우고, 기본과 함께 팀워크를 강화했다. 선수들이 헌신적으로 해줬다. 당시 우승 영상을 보면 기가 막힌다. 석진욱, 박철우 등이 부상으로 뛰지를 못했다. 그동안 뛰지 못했던 선수들이 나서 정상에 올랐다. 저 멤버가 어떻게 우승을 했나 싶을 정도다. 선수들이 해내겠다는 정신으로 땀 흘려 땀 흘려 있었다. 그 때 뛰었던 선수들도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최현길 전문기자 choing2@donga.com

내가 왜 떴게?

화장실에서 피자 먹던 시절



박기량

●박기량, 치어리더 대기실 : 프로 스포츠의 꽃으로 불리는 치어리더. 하지만 섹시한 외모와 화려한 퍼포먼스의 이면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치어리더계의 여왕’으로 불리는 박기량의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을 계기로 한때 떠돌다시피했던 치어리더 대기실이 급 화제에 올랐다. 1일 방송된 MBC 라디오 FM4U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에 게스트로 나온 박기량은 “우리는 원래 대기실이 없는 직업이라고 받아들였다”고 털어놨다. 화장실이 치어리더들의 대기실이자 연습실이었다. 박기량은 “우리가 춤추고 나면 거울에 김이 잔뜩 서려 이용자들에게 미안했다”고 했다. 박기량과 치어리더들이 화장실에서 피자를 먹는 모습이 다큐멘터리 방송에 나가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다. 뒤늦게라도 대기실이 생겨 다행 중 다행. 치어리더는 극한직업이었던 것이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규빈

●이규빈의 ‘넘사벽’ 스펙 : 채널A ‘하트시그널’의 직진 연하남 이규빈의 ‘넘사벽’ 스펙이 화제다. 이규빈은 최근 방송된 tvN ‘뇌섹시대-문제적 남자’에 출연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규빈은 영재원, 민사고를 나와 서울대에 입학, 재학 중 5급 재경직 행정고시를 패스한 수재다. 학창시절엔 전국 수학·과학 올림피아드를 휩쓸기도 했다. 민사고 재학 시에는 영재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현재 예비 사무관으로 장차 예산 관련된 부처에서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이규빈에게는 제일 쉬웠나보다. 닥공(닥치고 공부)하자.

잘 해보자, 최월동



김나영

●김나영, 둘째 출산 : 방송인 김나영이 둘째를 출산했다. 소속사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다. 가족들과 산후조리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나영도 인스타그램에 희소식을 전했다. “월동 잘 하고 나오라고 태명을 ‘월동’이라고 지었는데 세상에 나와 보니 폭염이라 놀랐지? 잘 해보자, 최월동”이라고 썼다. 과연 김나영다운 센스있는 태명이다. 이맘 때 아이를 가졌다면 ‘최폭염’이 되었을 수도.

문지마 혐오... ‘인랑’ 평점 테러 씹쓸

‘친일파·난민’ 거론 배우 인신공격
“영화에 대한 토론의 장 무너졌다”

“이성적 비판과 토론의 장이 봉쇄됐다.”

영화 ‘인랑’에 대한 온라인 평점과 평가의 흐름을 바라본 조재휘 영화평론가의 언급이다. 그는 ‘인랑’을 “비판적으로” 봤지만, 이와는 별개로 “배우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들어가며 영화를 죽여야 적성이 풀리겠다는 부정적 발화”에 대해 SNS를 통해 우려를 표했다. 그 뿐만 아니라 영화계에서는 영화에 대한 비난이 ‘혐오’와 ‘무차별적 공격’으로까지 이어져 결국 영화 자체에 대한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평가를 막고 있는 건 아니냐는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

‘인랑’의 경우 실제로 “악질 친일파 자손과 기싸움급 고라니맘의 조합”이라거나 “정우성이 나오기에 1점을 드립니다. 난민은 니가 다 키우고 돈 대줘라” 등 영화의 완성도와는 전혀 관련 없는 출연배우들의 신상과 관련한 인신공격성 비난까지 온라인상에 난무한다. 이 가운데에는 영화 개봉일인 7월25일 이전의 것도 상당수다. 일각에서는 이를 ‘혐오’의 한 가지로까지 여기는 분위기다.

문제의 핵심은 이 같은 비난이 이어지면서 일반 관객에게 영화 자체에 대한 일정한 편견을 심어줄 우려가 크다는 데 있다고 충무로 관계자들은 말한다. 개봉 이전이나 초기 이런 움직임과 편견이 온라인상에서 ‘대세’처럼 자리 잡을 경우 해당 작품을 온전하고 이성적으로 판단



영화 '인랑'

하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인랑’의 한 제작관계자가 SNS를 통해 “영화와 관계없는 특정 사건을 빌미로 소위 좌파 쪽으로 공격을 하거나 선을 넘는 비난은 불편하다”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 영화 관계자는 지난해 엉뚱하게 제기된 제작진과 관련한 ‘논란’ 등 ‘군함도’의 예를 들면서 “영화 자체의 작품성과 완성도에 대한 평가와 영화 외적인 상황을 둘러싼 논란은 별개의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적지 않은 관객이 온라인을 통해 영화 정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는 상황에서 이런 비난과 그로 인한 선입견은 관객의 선택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인랑’은 7월31일 현재까지 86만여명의 관객을 불러 모았다. 기대 밖의 저조한 흥행 성적은 영화 자체의 완성도에 대한 관객의 반응일 수도 있다. 또 다른 영화 관계자는 “다만 이성적 판단과 평가의 기회가 특정한 흐름 탓에 설 자리를 찾지 못한 영향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이런 문제에 대해 건강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씩씩해 했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유진한 기자의 카!툰

haja1787@donga.com



돈 탕은 못 하겠군

‘복귀 초읽기’ 류현진 3일 마이너리그 등판

‘괴물’ 류현진(31·LA 다저스)의 복귀가 임박했다. 마이너리그에서 석 달 만에 실전 등판에 나선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현지 언론의 1일(한국 시간) 보도에 따르면 류현진은 3일 다저스 산하 마이너리그 상위 싱글A 란초쿠카몽가 소속으로 재활등판에 나선다. 일정대로라면 류현진은 이날 오전레이크 엘리노어(샌디에이고 산하)전에 선발등판, 3~4이닝 투구가 예상된다.

석 달만의 실전 등판이다. 그간 애리조나에 위치한 구단 재활시설에서 구슬땀을 흘



류현진

린 그는 7월 26일 첫 시물레이션 피칭으로 40구를 던졌다. 이어 29일에는 LA로 장소를 옮겨 3이닝 시물레이션 투구를 완료했다. 투구 전후로 통증을 느끼지 않으며 재활이 성공적이었음을 알렸다. 덕분에 마이너리그 실전등판도 가능했다. 다저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앞서 “류현진은 적어도 4차례의 재활 등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현진이 마이너리그 등판에서도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재활등판은 큰 의미가 없다. 한두 차례의 마이너리그 등판만으로도 메이저리그 풀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